

2010년 5월 1일 선배가정국기도회 간증 <너희를 향한 선생의 사랑을 알라> 주이랑

새벽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선생 사랑을 증거 해야 한다. 선생을 너무 모르니 떠나간다. 깊이 기도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하였습니다. 그 후 저도 제가 아는 선생님, 제가 느꼈던 10년 동안의 선생님을 차근차근 생각해보았습니다. 나에게 편지 주셨던 것이 사랑이었을까. 나에게 통화해 주셨던 것이 사랑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선생님의 사랑의 근본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섭리사 신부야,

너희들 신랑 예수다. 봄날이 왔다. 바깥 어두운 곳은 싸늘하고 매세운 북풍이 분다. 그러나 내 품에 안긴 너희는 봄날의 따스한 햇볕이다.

사랑, 내 사랑의 봄이다.

내 신부야,

오늘은 너희를 향한 선생의 사랑을 증거 하고자 한다.

앞장 선 내게 해가 될까 쉬이 사랑도 표현 못하는 내 신부, 그 사랑을 내가 친히 증거 하고자 한다.

너가 준비한 사랑의 그릇을 꺼내어라.

사랑, 사랑 그의 온기가 담긴 사랑을 너에게 부어 주리라.

마지막 천사장 나팔과 함께 내가 강림할 것을 알렸을 때 그는 첫째로 너희를 떠올렸다.

그 찰라의 순간, 그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치는 너희의 얼굴을 나는 보았노라.

속히 알려줘야 하는데, 너희 한명 한명 붙잡고 눈과 눈을 마주치며 외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의 현실이 고통이었다.

지옥 같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요, 먼 한국 땅에 영혼 생생하게 들려오는 너희의 신음소리가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그리고 차디찬 곳에서 스스로 위한 고통의 시름이 아니요, 오직 너희 섭리사 너희를 위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피땀뻘 눈물, 가슴 치는 통곡으로 내게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간구했다.

30년간 편히 발 뻗고 자지도 못한 지치고 지친 그 몸으로 1년만 참으소서. 심정의 눈물 흘렸다.

너희는 모른다. 그가 나와 나눈 대화를.. 그의 심정을..

너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다.

너희 생명의 운명 바꾸는 기도였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도 너를, 바로 너를 지키고 있다.

이 시간 말해보아라. 선생의 사랑을 받은 너희여,

너희 마음으로 고백해 보아라.

진정 그의 사랑을 보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였느냐.

섭리사 너희는 내게 말한다.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나 내 신부야,

실상 선생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자 있겠느냐.

너희를 사랑하여 껴안고 온 지난 30년은 그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십자가였다. 땅의 사랑을 이루려니 무겁고도 아픈 십자가였다.

그러나 절대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고, 그의 귀는 진실만을 들었으며, 그의 눈은 근본의 마음을 보며 행하였다.

내 진실로 증거 하노니 그는 공의로운 사랑을 하였으며. 진실된 사랑을 하였으며, 심정의 사랑을 하였으며, 사랑의 사랑을 하였다. 진정 깨달아라.

그의 손길, 그의 눈빛 받음이 사랑이 아니다.

눈비 맞아가며 절절한 심정으로 지옥으로 치닫는 온 인류를 위한 기도가 사랑이요, 너희의 죄악 앞에 책망이 아닌 눈물의 회개로 올린 그 기도가 사랑이요, 손과 팔이 마비되어 펜을 질수조차 없음에도 그가 보내는 말씀이 사랑이요, 어린 아이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며 마음으로 달려가 안아주는 그의 편지가 사랑이다.

선생 보지 못하였다 눈물로 아파하지 말고, 선생 사랑 보지 못함을 아파하여라. 육신세계의 사랑이 아니다.

육신세계의 사랑으로 선생의 사랑을 판단하니까 진정한 사랑의 참 맛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도 선생의 사랑이 아프고, 너희의 사랑에 아프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 예수의 사랑도 아프다.

너희는 모른다.

나와 선생을 떠난 술한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선생의 마음을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그저 떠나는 형제로 여길지 모르나 그에게는 피붙이요, 살붙이다.

고로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며 용서하고 붙잡은 자 선생 뿐이었다.

인간의 사랑이었겠느냐. 아니다. 그 영혼까지 껴안는 신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찢기는 아픔이다.

그럼에도 사랑, 사랑,,, 진정 너희를 사랑하기에 오늘도 그 길을 나와 함께 간다.

섭리사 신부들아,

선생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희의 자량이 되지 말고, 그 사랑을 전하는 너희의 행함을 자랑삼아라.

오늘은 선생도 양떼를 위한 심정의 눈물을 흘리건만 그 사랑을 받아 전해야할 섭리사 일꾼들에게서 그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선생의 사랑이 거할 곳이 없다. 사랑은 전함으로 존재한다.

1000년 역사의 세월동안 진정 선생의 사랑이 남아지길 원한다면 지금 서로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라.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관리하고, 사랑으로 전도하여라.

선생이 내게 말하였다.

‘내게 잠시의 시간이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섭리사 방방곡곡, 한사람 한사람을 붙잡고 눈물로 이 재림역사를 알리겠습니다.’ 통곡하며 호소하였다.

알아라. 진정 알아라. 지금 너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에 숨겨진 선생의 심정, 사랑, 눈물 제발 알아라.

그리고 선생과 같이 깨달은 자 전하여라. 그것이 선생의 소원이다.

너희 모두가 친히 휴거되어 나와 선생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너희 선생의 기도다.

육신의 자유를 가진 너희여, 진정 그 사랑을 전해다오.

내 신부야, 선생위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강철 같은 정신 안에 숨겨진 심정의 눈물을 위로하자.

이 시간 내가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훗날 선생이 너희에게 들려주려나. 아니 너희 맘 아플까 그리 안할까다.

그저 속깊이 묻어둔 채 눈물만 눈물만 흘리겠지. 사랑한다. 안녕. 신랑 예수.